

더불어민주당 정책위, '천원의 아침밥' 전국 확대를 위한 서울대 방문 실시



-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민석 의장과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오늘(4월 5일), 김승남 국회 농해수위 간사, 김영호 교육위 간사, 강득구 의원, 민병덕 의원과 함께 서울대학교를 방문하여 유홍립 총장으로부터 '천원의 아침식사' 관련 사업보고와 현안을 청취하였음
- 서울대학교는 방학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는 다른 대학들과 달리, 방학 기간에도 학생들에게 천원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임
- 또한, 학생식당이 없는 연건캠퍼스는 푸드자판기 및 푸드트럭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음. 이 제도를 적극 확산하여 학생식당이 부재한 다른 대학 캠퍼스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함. 지역 식당 등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임
- 서울대학교는 아침, 점심, 저녁을 다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가 점심, 저녁을 제공하는 경우 식당 등 인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
- 아침부터 저녁까지, 방학기간에도 학생들에게 따뜻한 천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서울대학교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서울대의 사례가 타 대학에도 확산되기를 희망함
- 더불어민주당은 서울대 학생들뿐 아니라 전국의 대학생들이 따뜻한 천원의 아침식사를 먹을 때까지 정부에 예산증액을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임

2023. 4. 5.(수)